

대형 숙박·목욕시설 안전점검 강화

30년 이상 된 대형 숙박시설 2곳 정부·전주시·민간 합동 정밀진단 실시... '국가안전대진단' 일환

전주시가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사 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숙박시설과 목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시는 5일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전주시 공무원, 소방·전기·건축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사동 소재 30년 이상 된 대형 숙박시설 2곳에 대한 정밀진단을 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2018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합동점검반은 이날 소방과 전기, 건축물 등 설비 시설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또한 건축물 균열상태와 소화기·스프링클러 설비, 유도등 부착 상태, 비상구 폐쇄 여부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 시설 관리자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이와 관련 '2018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1000㎡이상 규모의 대형 숙박시설, 대형 목욕시설 150여개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시는 지난날까지 규모 1000㎡이상인 대형 숙박시설과 대형 목욕시설 시설

관리자에게 △소화기, 비상벨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영업시설 면적 및 내부 구조 변경 여부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여부 △전기 안전점검 확인 여부 △공중위생시설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자율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23일 까지 30년 이상 된 위험시설과 일부 대형시설들에 대해서는 소방과 전기, 시설 관련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점검 민·관합동점검반을 활용하여 이행 실태를 추가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을 가지고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재난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대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가 안전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고준희 양 가족들 반성문 릴레이

친부는 무려 17번 제출... 동거녀 이모씨 두 번

고준희양의 가족들이 몇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인 고모(37)씨의 경우 준희 양을 방치·폭행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무려 17번이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전주시방법원에 따르면 준희 양 친부 고모씨는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1심 재판을 받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에 17번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 고씨는 반성문을 통해 준희양을 방치·폭행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숨지게 한 것에 대한 죄를 뒤늦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반성문을 썼다. 고씨 동거녀 이모(36)씨는 두 번,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씨 모친 김모(62)씨는 한 번 반성문을 썼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상민 기자

때문에 형사재판 피고인 중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한다. 한편 고씨는 지난 1월 4일에 있었던 현장감증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준희를 지켜주지 못한 부분이 미안하다"면서도 "준희를 폭행하기는 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 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기도 방치한 뒤 숨지게 한 달 27일 오전 2시에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독거노인 전수조사 실시

전주시는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는 3월 한 달 동안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2만 1595명 중 기초연금수급자와 방문요양 서비스 등 다른 재가복지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는 어르신을 제외한 독거노인 1만 4600명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독거노인 현황 조사는 전주시 독거노인일자리지원센터 생활관리사가 직접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소득과 건강, 주거형태, 사회적 접촉 등을 면접 조사한다. 현황 조사로 파악된 어르신들의 각종 지표를 평가한 후 점수가 높은 보호 필요 독거노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조정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5일 조성원 변호사(오른쪽)와 이진우 매거진 군산 대표가 전주시방검찰청 군산지청에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들은 만 19세 이상 군산시민 300명의 고발인단을 모집했다.

스쿨존어린이 안전지킴이 발대

전주시는 개학에 맞춰 41개 초등학교에서 스쿨존 어린이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스쿨존 어린이안전지킴이 사업은 학교 시간대에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 봉사단체 회원들이 각 학교에 안전지킴이로 배치되어 교통안전지도뿐만 아니라 학교주변 우범지역 순찰 활동과 보행이 어려운 장애우의 보행도우미 역할 등을 담당하는 사업이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5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서 올해 어린이안전지킴이 봉사자로 참여한 81명의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했다. /채규남 기자

'GM 군산공장 폐쇄 책임' 경영진 고발

조성원 변호사·이진우 매거진 군산 대표 중심... 군산시민 300명 참여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지역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고발장이 전주시방검찰청 군산지청에 5일 접수됐다. 고발장은 조성원 변호사와 이진우 매거진 군산 대표를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이들이 모집한 시민고발인단에는 만 19세 이상 군산시민 300명이 참여했다. 혐의는 ▲지엠에 대한 한국지엠의

고리부채 부담 ▲이전가격 조작 ▲지엠에 지급한 개발비와 로열티 ▲지엠으로부터 부품 고가 매입 ▲지엠에 완성차 저가 판매 등이 꼽혔다. 조 변호사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나 감사를 요구했으나, 한국지엠의 거부나 방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실사나 감사는 행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라

면 고발할 이유가 없겠지만, 계획된 불법적 적지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시민고발단을 모집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민고발인단은 고발 이후 산업은행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와 한국지엠 세무조사도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지엠은 지난달 13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오는 5월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이상민 기자

'모더니티,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유쾌한 인문학 1탄 13일~4월17일 매주 화 전주시평생학습관

전주시는 시 '동서양의 근대성 탐구'를 주제로 유쾌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쾌한 인문학 1탄은 오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 평생학습관은 올해 유쾌한 인문학을 '모더니티(근대성)'를 주제로 총 5탄 30개 강의로 꾸밀 예정이다. 1탄은 '모더니티, 그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진행, 향후 각각 △근대 유럽 산업 기술문명의 과거와 현재(2탄) △'종의 기원'과 근대성(3탄) △근대적 인간의 정체성: 국가, 민족, 신화

(4탄) △근대적 세계관의 탄생(5탄)을 주제로한 인문학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유쾌한 인문학에 참여하는 부모의 동반자녀를 위한 어린이인문학도 별도로 운영한다. 어린이인문학 1탄은 '나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주제로 강사들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체험 활동을 함께 한다. 한편 유쾌한 인문학 프로그램 수강료는 3만원(어린이 인문학 1만원)이다. 신청은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onju.go.kr) 또는 전화(063-281-5367)로 신청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전주보건소, 모기 등 유해해충 박멸 나서

전주시는 각종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모기 등 유해 해충을 박멸한다. 전주보건소는 봄철을 맞아 월동 모기와 모기 유충 등을 없애기 위해 2개반 4명의 방역기동반을 편성, 오는 10월 말까지 정화조와 공원지역, 북개천, 민원 발생지역 등에 집중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방역기동반은 오는 5월까지 단독주력과 복합건축물 등의 정화조에 친환경 약품을 투입, 모기 유충을 박

멸하는 모기 유충 구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는 본격적인 여름철에는 특별방역 대책으로 초미립 방역소독 차량 9대를 입차, 3일 간격으로 27개 코스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각 주민센터에 1~3명씩 총 54명의 방역 인원을 배치해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